

박 시장 “연말까지 3선 시동 걸겠다”

7~8명 후보들 연말되면 1~2명으로 정리될 것 논란 ‘정율성 생각’ 고증위 구성해 규명하겠다



박 시장은 “(내가) 벌써부터 움직이면 다 후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과열되게 된다”면서 “현재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여타 후보들도 연말에 가면 빠질 것이다. 다른 후보들의 시동이 꺼지는 것을 보고 (내가) 시동 걸겠다”며 3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연해 “IMF 때 줄어든 2급 정원 한자리를 다시 늘려 세자리로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 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율성 생각 문제에 대해 고증을 거쳐 정리하고 생각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중구 관광객들이 정율성 생각을 보려고 광주를 찾는데 지역에서 혼란을 일으키면 안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고증위원회를 통해 생각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구 혁명음악의 대부분 정율성 생각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고증위원회를 구성해 생각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고증위원회는 역사학과 음악관련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율성 선생 생각은 광주 남구청이 지난 2004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광주 남구 양림동 79번지를 생각터로 지목하고 복원에 나섰다. 정씨 종친회가 동구 불로동이 생각터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대구 잇는 ‘내륙특화벨트’ 구축

동서 화합·상생 위한 합동 토론회

88고속도 확장·내륙철도망 건설 등 모색

광주시와 대구시가 초광역 내륙특화벨트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13일 오후 2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동서간 공동발전 전을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개최, 정부의 대외개발형 초광역개발권 계획에 따른 광주-대구간의 협력과 내륙

특화벨트 공동 구상안을 교환했다. 초광역개발권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확장한 개념으로, 광역경제권간의 협력 및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반도 남해안을 동서로 관통하는 ‘선 벨트(sun-belt)’, 남북한 접경지역 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

트 및 서해안벨트가 대표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주-대구 협력벨트는 지리적으로 내륙벨트이자, 메트로폴리탄(광역대도시)을 연결하는 도시형 벨트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양 지역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대구간 편도 1차로인 88고속도로를 조기 확장하는 한편, 두 도시를 연결하는 내륙철도망 건설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같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 대

구와 광주의 중간지대인 고령군, 거창군, 남원시, 순창군도 벨트내로 편입된다. 또 연구개발과 산업 배치 측면에서는 대구의 뇌용합연구과광주의 광산업 연구개발 특구의 협력체계 구축, 대구 IT융합 및 그린에너지, 광주 LED·재생에너지부품소재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대구는 침복단지를 활용한 의료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광주는 노인의료서비스, 바이오메디칼로 특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광주시는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서 대구시를 측면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다져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쇼핑물 ‘남도장터’ 브랜드 대상 수상

전남도 대표 쇼핑물인 ‘남도장터’가 ‘2009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자 직접투표와 소비자 조사 등 196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브랜드조사에서 ‘남도장터’가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소비자포럼 등이 주최한 이번 평가는 지난 8월 31일까지 3개월여간 소비자 직접투표, 설문조사, 브랜드위원회 전문가 심

의를 거쳐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통해 대한민국 NO. 1 위치를 굳건히 지킨 각 산업부문 별 1위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이다. 선정된 브랜드는 대한민국 경제와 소비생활을 주도한 한국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홍보대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 충성도를 확고히 다져 평생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도 전국 첫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

2018년까지 1천억원 목표 올 15개 업체에 71억 지원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녹색축산 육성기금을 조성, 올해 15개 업체를 선정해 이달부터 71억 원을 용자하는 등 지역 축산업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은 도비(30%)와 시·군비(70%)를 포함, 2018년까지 1천억 원이며 올해 조성 목표액은 도비 60억 원과 시·군비 14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이다. 전남도는 이가해 행정부지사를 위

원장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부터 접수된 용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올해 15개 업체에 71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용자사업은 도내 도축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축장 3개소에 18억 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시설 6개 업체에 32억 원, 유통 판매분야 6개소에 21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능력과 유통·가공·판매체계를 연계, 친환경 축산물이 전량 판매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



현장과 시각

비엔날레의 진정한 가치는?



오 광 록
문화부 기자

지난달 개막한 제3회광주 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가 미술계의 호평을 받으면서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신종플루 과민증’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예년 디자인비엔날레의 주 관객이라 할 수 있는 단체관람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백화점 세일매장같은 북새통 관람을 이번 대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두고 일부 관람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비엔날레 재단 안팎에서는 이제는 비엔날레의 가치를 관람객 수가 아닌 ‘전시의 질’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치적쌍기용’으로 관람객 수만 늘릴 게 아니라 명품 전시를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등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개막전 30만명 유치목표로 사전 예약을 하는 관람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내놨다.

또 일선 학교를 상대로 단체 관람객 유치 활동도 펼쳤다. 하지만, 개막 3주째를 맞은 13일 현재 관람객 수는 지난 2회 대회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8만 8천여명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관람객 목표치를 16만명으로 수정했다.

반면 관람객 수는 줄었지만 전시기획과 작품작에 대한 호평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발견하는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지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일부 전시가 네덜란드 등 7개국에 수출되는 게기도 올랐다. 디자인 전시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처음이다. 또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천72억여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분명한 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브라질의 리우 삼바 축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등의 상업 축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관람객수가 대회 성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7회광주비엔날레의 예술 총감독이었던 오쿠이 엔위저 감독은 지난해 퇴임 인터뷰를 통해 “관람객만 모으려면 미술 작품 보다는 차리리 미키 마우스를 가져다 놔라”고 말했다.

비엔날레는 상업적인 축제와는 달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 행위이다.

이제는 관람객 수가 아니라 광주에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재평가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다. 매년 비엔날레가 끝나면 광주지역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설치 작품을 과제로 제출한다고 한다.

미래의 주역들이 난해한 현대미술과 디자인을 일선에서 즐기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비엔날레의 성과가 아닐까. /kroh@kwangju.co.kr

마을 힘쓴 산사태...실종자를 찾아라

13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뱅겟주 라트리니다드 푸구이스 마을 산사태 현장에서 필리핀 경찰 인명구조대 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태풍 ‘렛사나’, ‘파르마’가 연이어 필리핀을 강타해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경스님 초창 인생상담 행사안내

다가올 당신의 운세를
'영험한 법력'으로 풀어드립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일들을 어렵고 힘들게 풀어가는 사람들은 도경스님을 뵙길하십시오.

저 도경스님 보니까 운 좋으신, 재물이 넘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운이 좋으신 분은 재물이 넘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운이 좋으신 분은 재물이 넘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동산, 주식, 사업, 취업, 투자, 시업, 계약금 등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까지 운이, 다가올 당신의 운세를 볼 수 있다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업을 위해 도경스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 정년이 가까워오실 분들은 우선으로도 보셔도 좋습니다.

대한 불교는 도경스님을 뵙길하십시오

사명 - 명암 - 승관 - 주석
사명 - 건국 - 희암 - 배재

일 정 : 10월 15일 ~ 10월 18일 (4일간) 오전 10시 ~ 오후 8시
장 소 : 광주 서구 금호동 CGS빌딩 4층 주서장명암 (다심리) 한사당 (1층 대법당 하부에 있습니다. 전화 문의 가능)

참관비 : 1만원

예약접수

062) 385-9954